

# 지역연구와 사회

이 상 율\*

## Society and Regional Study

Lee Sang-Yool\*

### 1. 서론

지역(region)의 자연현상(지형, 기후, 식생과 토양)과 사회현상(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종합적인 설명은 지리학의 중심 연구과제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1970년대 이후 서구의 인문학과 사회과학이 이성과 합리성, 과학성이란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개념에 기초한 전통적 사회이론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새로운 이론과 방법론을 생산하게 됨에 따라 지리학도 이러한 이론과 방법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게 되었다. 새로운 사회이론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지리학의 지역연구는 전통적 공간이론과 방법론에 강한 회의를 나타내면서 공간/장소, 사회, 그리고 역사를 치밀하게 결합시킬 수 있는 이론과 방법론을 발전시키고 있다. 세계화의 진전과 정보 통신기술의 빠른 발전은 지역의 사회 경제 문화를 변화시키고 있다. 지역연구의 새로운 이론과 방법론 발전의 현실적인 필요성은 이러한 현상을 적절하게 설명하고 나아가 지역사회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는데 있다. 본 연구는 새로운 시각에서 지역과 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한 논의를 제기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내용은 1) 지역의 개념화, 2) 지역, 사회, 시간(역사)의 상호작용 그리고 3) 공간규모의 관점에서 지역과 사회의 이해로 구성되어 있다.

### 1) 공간과 사회(자연)에 의한 지역의 개념화

지역은 공간과 사회의 결합에 의해서 정의될 수 있는 것으로, 한정된 물리적 공간에 기반을 둔 사회 자연적 현상들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형성 유지 변화되는 인공물이다. 그리고 지역은 사회적 인식과 행위에 의해서 (재)생산될 뿐 만 아니라 사회를 변화시키는데 능동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포괄적 역동적인 지역개념을 분석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언어 상상 이념적 관점, 물리적 공간의 관점 그리고 사회 역사적 관점으로 세분시켜 논할 필요가 있다.

지역은 인간의 언어 상상력 이념에 의해서 만들어진 개념으로, 실존의 공간과 사회에 기반을 두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허구, 상상, 이념에 기초하여 만들어질 수도 있다. 언어 상상 이념에 의해 창조된 지역도 실존의 공간과 사회와 직 간접적으로 관계될 때 의미가 있을 것이다. 영 호남의 갈등에 관해서 말할 때, 영남지역과 호남지역은 역사 사회적 실체에 의해 형성된 갈등을 의미하는 경우와 이념적으로 차별화된 지역을 의미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영남지역과 호남지역은 정치적 이용 전략에 따라 두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적 실체와 무관한 이념적 지역으로 개념화될 수 있다. 문학작품에서 실존적 역사 사회 공간과 분리된 허구, 상상, 이념의 지역을 형성시키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목적은 실존의 지역공간이 타 정치 사회 공간에 의해 억압 혹은 지배 종속의 관계에 있을 때 이러한 지역을 해방시키거나 보다 나

\*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교수(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Catholic Univ. of Taegu-Hyosung)

\*\* 발표자의 사정으로 수정, 보완없이 발표문을 그대로 게재합니다.

은 정치 사회 공간을 건설하기 위함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장소마케팅(place marketing) 전략에 의하면, 경제가 침체하고 있는 지역의 기업가와 정부는 지역 실체와는 무관하게 미화된 상상 혹은 가상공간을 만들어 지역공간을 상품화시켜 보다 많은 관광객에게 선전하고 있다.

상상과 이념이 아닌 실존의 지역은 물리적 공간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한정된 물리적 공간 자체로만 지역성이 파악될 수 없다. 순수 물리적 공간으로 지역개념은 물리학, 수학, 기하학, 논리학, 등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이들 학문은 공간자체에 내재된 법칙을 발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1950년대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 논리실증주의 혹은 공간법칙의 수립을 추구한 지리학은 물리학, 수학, 기하학, 논리학 등에서 발전된 공간 개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지표의 다양한 자연 사회 현상들의 인과 관계나 공간법칙을 발견하려고 노력했다. 20세기가 저물어 가는 현재 지역의 물리적 공간 자체로부터 법칙을 수립하려는 연구는 더 이상 인문지리학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역의 다양한 현상들은 물리적 공간에 기초하여 구체적으로 실천되고 있으며, 또한 지역의 공간범위를 설정할 때 물리적 공간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지역은 자연발생적이 아닌 사회적 요인들의 복합적이고 역동적인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되며, 생성된 지역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역사적 시간 속에서 지속적으로 변화되고 있다. 근대 서구 사회 과학은 공간과 사회를 이분법적으로 인식하거나 혹은 공간은 사회가 존재하기 위한 바탕이 되는 정도로만 인식하였지 사회의 다양한 힘(정치, 경제, 문화적 요인)이 어떻게, 왜 다양한 규모의 공간(집, 도시·농촌, 지역, 국가, 세계)을 형성시키고,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공간규모들이 사회변동 혹은 새로운 사회형성에 적극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지에 대한 인식과 연구가 부족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서구의 사회과학에서 공간과 사회가 역사적 시간 속에서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에 대한 이론적 방법론적이고 경험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지역의 형성 지속 변화는 인문지리학에서 중심적 연구주제가 되어 있으며, 상이한 공간규모의 관점에서 볼 때 지역공

간은 타 공간규모와 차별화된 사회적 구조 제도를 구축하고 이에 기반하여 개인적 사회적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차별화된 지역사회 구조 제도 그리고 실천은 타 공간규모(지방, 지역, 국가, 세계)에서 작동하는 제도와 실천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으면서 변화하고 있다.

## 2) 지역, 사회, 그리고 시간(역사)의 상호작용

1970년대 중반 이후 서구지리학이 논리실증주의 혹은 공간의 내재적인 법칙을 발견하려는 노력과 다른 새로운 방향을 정립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개념적 틀은 공간(지리), 사회, 시간(역사)의 상호작용성을 이론적 경험적으로 탐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지리학의 새로운 연구계획은 지표공간의 특정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지역의 다양한 인문 자연 현상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려는 지역연구에 자연스럽게 적용될 수 있다. 지역의 다양한 현상들의 역동적 이해는 지역과 사회의 이분법적인 사고가 아닌 지역을 사회와 역사의 상호관계성 속에서 설명될 때에만 가능하다. 지역, 사회, 시간(역사)의 개념을 치밀하게 결합시킬 수 있는 이론적 틀을 제공한 대표적인 학자 혹은 철학자는 Foucault(1980), Harvey(1996), Lefebvre(1991), Soja(1996)이다. 특히 Soja는 그의 저서 *Thirdspace*를 통해서 공간성(Spatiality), 역사성(Historicity) 그리고 사회성(Sociality)의 상호작용(trialectics)은 존재론, 인식론, 이론 형성, 경험적 분석 그리고 사회적 실천의 모든 면에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1996).

특정한 혹은 경계된 공간성으로 볼 수 있는 지역성은 사회적 인식과 실천에 의해서 형성되어지며, 형성된 지역성은 지역의 내외적인 조건변화에 따라 다양한 사회적 갈등을 발생시켜 사회변화의 원동력으로 작용한다. 지역성과 사회성의 상호작용을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이 사회적 공간(social space)이며, 이것은 서구 인문사회과학이 공간과 사회를 이분법적으로 설명하거나 혹은 사회의 형성 지속 변화를 추상적이고 논리적인 공간에서 이해하려는 이론과 방법론의 비판에 근거하고 있다. 여기서 사회적 공간은 개별적 혹은

집단적 인간의 상상력, 공간에 대한 인식, 이념, 경제·정치·사회·문화적 실천에 의해서 형성된 생산물(products)이며, 개별사회는 상이한 사회적 공간을 형성시키고, 생성된 사회공간들은 협력 혹은 경쟁 관계에 있기 때문에 사회를 지속 변화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한다.

Lefebvre(1991)에 의하면 사회적 공간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 자본주의 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사회공간의 변화는 인간의 인식과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실천에 의해 형성된 사회적 공간에 내재된 두가지 상반되는 힘의 작용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다. 자본주의적 생산양식하에서 형성된 사회공간은 교환가치(exchange value)에 의한 사회공간의 동질화(homogenization) 경향과 사용가치(use value)에 의한 사회공간의 차별화(differentiation)경향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재구조화되고 있다. 전자의 의미는 자본은 보다 높은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공간을 이동하게 됨에 따라 상이한 사회적 공간이 동질화의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고, 후자의 의미는 비경제적인 인간의 인식과 실천, 즉 언어, 종교, 가치, 관습, 이념 등에 의해서 형성된 사회적 공간은 차별화의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자본의 논리와 정보 통신의 발전에 의한 세계화와 종교, 민족·인종, 환경문제 등의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는 지역간 갈등이 심화되리라 예상하고 있는 21세기에도 사회적 공간개념은 공간과 사회의 상호관계적 관점에서 지역사회의 형성 지속 변화를 설명하는데 유용한 도구가 될 것이다.

종합적이고 역동적인 관점에서 지역사회를 이해하기 위해서 지역과 시간(역사)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다. 그러나 공간과 사회의 상호작용을 설명하려는 사회이론은 공간과 시간(역사)의 관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이지 않았으며, 이러한 사조는 1980년대 이후 사회이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지리학자들의 연구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공간은 사회적 구조 제도와 실천에 의해서 형성되며, 생성된 사회공간은 사회변동의 원동력으로 작용한다는 논리에 기초하여 지리학자들은 공간과 사회에 관한 다양한 이론과 경험적 연구결과를 축적시켰지만, 공간과 시간(역사)에 대한 이론 경험적 연구는 드물다.

그러나 Lefebvre의 공간과 사회에 대한 이론을 충분히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Harvey와 Soja는 공간과 시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를 지속시키고 있다. 공간에 대해 시간(역사)의 우위성 혹은 중요성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Foucault에 의하면, “공간은 생명이 없으며, 고정되어 있고, 비변증법적(undialectical)이고 정적인 반면에 시간은 다양하며, 생산적(fecundity)이고, 생명력이 있으며 그리고 변증법적이다”(1980). 물리적 공간을 전제하지 않는 시간은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양하고 역동적이고 변증법적인 것은 추상적 논리적 시간이 아니라 물리적 실체에 기반을 둔 사회공간이거나 혹은 사회공간의 역동성에 기반을 둔 역사이다. 인류 역사는 공간과 시간 속에서 발달해 왔지만 역사가들은 공간보다 시간을 선호할 뿐만 아니라 역사변화에 있어서 공간의 능동적 역할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엠마누엘 토트, 김경근 옮김, 1997). “역사학은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이 게르만 세계, 스칸디나비아 반도, 네덜란드, 스코틀랜드, 남부 프랑스에서 발생했다고 하기에 앞서 16세기의 특징적인 현상으로 간주한다. …… 종교사, 정치사, 사회사의 수많은 사례들은 일반 역사서술에서 공간에 대한 시간의 절대적 우위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 역사가들은 공간에 대한 무관심과 시간에 대한 선호는 아마 의식적, 방법론적 또는 이론적 선택에서 나온 것은 아닐 것이다. …… 내가 보기에 공간은 그 인식과 표현이 본질상 시간의 그것들보다 더 복잡하기 때문에 망각되는 것이다”(엠마누엘 토트, 김경근 옮김, 1997).

지역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지역연구는 지역, 사회, 시간(역사)의 상호작용적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되며, 지역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지리학은 지역이 사회와 역사에 의해서 형성될 뿐만 아니라 사회와 역사 변화에 능동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보다 풍부한 이론을 개발함과 동시에 다양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 경험적 연구가 요구된다.

### 3) 공간규모의 관점에서 본 지역과 사회

지역사회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지역적 공간

규모(regional scale)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지역 내 외적인 다양한 공간규모에서 발생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요인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변화되고 있다. 따라서 지역의 사회적 형성과 상이한 공간규모의 상호작용(interscale relations)은 지역과 사회를 종합적이고 역동적으로 이해하는데 중요하다.

물리적 공간을 배제한 사회의 존재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간과 사회가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다는 것은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나 개별적 혹은 집단적 인간의 인식과 실천에 의해서 다양한 사회가 형성, 지속, 변화하는 것에 대한 이론적, 경험적인 연구는 수없이 진행되었지만 사회의 물리적 기반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사회변화의 원동력으로 작용하는 공간규모의 사회적 형성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지역과 사회를 연구할 때 지역이라는 공간규모(spatial scale)는 제한적인 물리적 공간, 분석단위 혹은 사회의 다양한 현상이 구체화되는 무대 정도로만 이해할 뿐 지역공간이 사회적 힘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또한 지역 내외적인 환경변화에 의해 지속적으로 변화된다는 사실은 잘 인식되지 않고 있다. 지역규모는 자연적으로 주어지거나 고정된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힘에 의해 생산·재생산되고 또한 변화한다. 예를 들면, 일상생활에 기준을 두고 지역공간을 연구할 경우 지역공간의 범위와 내용은 사회·경제적 구조의 변화와 교통·통신 기술의 발달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할 것이다.

1980년대 이후 세계화, 정보화가 급속하게 진전됨에 따라 기존의 지역공간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 혹은 적극적 대응을 하기 위해 재구조화가 진행되고 있다. “세계화란 단순히 지역간의 동질화(homogenization)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지구촌으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지역간의 격차가 생성되고 독특한 장소의 특성이 형성되는 것으로도 이해하여야 한다. 즉 세계화 과정에서 전통적인 장소의 개념은 더욱 부각되고 있으며, 지역 공동체의 동질성은 강화되고 있다”(이희연, 최재현, 1998). 통신·정보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경제가 빠르게 세계화되어 기업간 혹은 지역간 경쟁이 증가함에 따라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다양한 제도의 개편, 새로운 기업과 연구소 유치,

기업 대학·연구소 정부의 협력, 신노사문화의 형성, 정부의 경제·사회정책 등을 통해 보다 혁신·창조적이고 지속적인 부를 창출할 수 있는 지역 공간으로의 재구조화가 시도되고 있다.

지역과 사회를 종합적이고 역동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지역 내외적인 환경 혹은 요인들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여기서 지역 내외적인 요인들의 상호작용을 상이한 공간규모의 관점에서 새롭게 접근하고자 한다. 물리적 공간은 수많은 공간규모로 분리시켜 개념화할 수 있지만 근대사회가 형성시킨 대표적인 공간규모는 집, 지방, 도시·농촌, 지역, 국가, 다수의 국가군(유럽, 아시아, 북미), 세계이다. 여기서 지역규모는 국가의 하위공간 혹은 다수의 국가군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공간규모보다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특히 1990년대 이후 한국의 대학에서 붐을 일으키고 있는 지역학(area studies)에서 지역이란 국가 혹은 다수의 국가군을 지칭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규모의 공간적 범위에 대한 이해의 복잡성을 한층 높이고 있다(이상섭·권태환, 1998). 이희연·최재현은 상이한 공간규모적 측면에서 지역성 변화의 이해를 시도하고 있는데, “지역의 변화는 지역성의 변화를 의미하며 크게 국지적(local) 변화, 국가적 변화, 세계적 변화의 세 가지 수준에서 파악된다”(1998)고 서술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 지역의 공간규모는 하나의 도시나 농촌보다 큰 국가의 하위공간규모에 한정시키며, 지역공간의 형성과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의 적인 공간규모는 집과 이웃, 국가, 세계로 구분한다. 지역 하위공간(집과 이웃)은 개인, 가족, 지역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생활공동체를 형성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지역공간의 형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역 하위공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빈부격차, 종교, 인종에 기반을 둔 이질적 성격의 지역 하위공간은 지역공간을 변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근대국가는 국토계획, 산업입지정책, 토지정책, 자원배분정책 등을 통해서 지역공간의 형성에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탈산업화론자 혹은 탈국가론자는 세계화와 통신·정보기술의 발달에 근거하여 지역공간의 형성에 국가의 역할이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역공간은 국가의 다양한 정책을 일방적으로 수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이한 지역공간간의 갈등은 국가 성격의 규정과 행위 나아가 존립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세계의 정치·경제·문화공간은 정치적 이념 전파, 자본·노동·기술 상품의 이동, 종교·소비문화의 전파 등을 통해서 지역공간과 지역하위공간의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역과 사회의 종합성과 역동성을 파악하기 위해 공간규모에 대한 이해는 중요하다. 지역은 사회·역사에 의해서 형성·변화하는 실체이며, 지역은 다양한 공간규모로부터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아 변화하고 있다. 지역공간은 상이한 공간규모로부터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타 공간규모의 변화에 적극적인 요인으로도 작용한다.

## 2. 결론

지리학이 지역과 사회의 연구에서 독자적 영역을 구축하고 나아가 타 학문분야에 적극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다음의 두가지 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시킬 필요가 있다. 지리학은 지표의 자연, 인문, 사회의 다양한 현상을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이미 전문화되어 있는 인문학, 역사학, 사회과학, 자연과학에서 축적하고 있는 이론과 경험적 연구성과물을 지속적으로 흡수하여

야 한다. 그리고 지리학이 독자성을 확보하고 동시에 타 학문분야에 새로운 영양분을 제공하기 위해 공간과 장소, 사회와 자연 그리고 역사를 종합적이고 역동적으로 결합시킬 수 있는 이론 혹은 모형을 수립하고 이에 바탕을 둔 경험적 연구를 진행시키고 나아가 현실의 사회와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文獻

- 이상섭·권태환, 1998, 한국의 지역연구: 현황과 과제, 서울대학교 출판부.
- 이희연·최재현, 1998, "지리학에서의 지역연구 방법론의 학문적 동향과 발전방향 모색, 대한지리학회지, 33(4) 557-576.
- 엠마누엘 토트지움, 김경근 옮김, 1997, 유럽의 발견: 인류학적 유럽사, 서울:까치
- Foucault, M., 1980, *Power/Knowledge*, New York: Pantheon Books.
- Harvey, D., 1996, *Justice, Nature and the Geography of Difference*, Cambridge and Oxford: Blackwell
- Lefebvre, H., 1991, *The Production of Space*, Cambridge, MA: Blackwell.
- Soja, E.W., 1996, *Thirdspace*, Cambridge and Oxford: Blackwell.